

팔레스타인

- 정OO 정OO 선교사

예루살렘에 온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무엇보다 이곳 정서와 문화를 배우고 알아가려고 노력중입니다.

다. 감사하게도 현지인들과의 교제 모임을 소개 받아서 만나고 있는데 인도계와 러시아계 유대인들입니다.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리스계 아랍 목사님과 미국 선교사님의 딸 부부를 집주인으로 만나게 되어 이분들을 통해 서안지구의 지하 가정교회와도 연결되고 새벽기도의 처소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 땅과 민족 안에서 준비하신 모든 만남과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미얀마

- 한OO 김OO 선교사

긴급 기도제목을 올립니다. 최근 미얀마 군부정권에서 남아병역의무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겠다고 대국민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자 18-35세, 여자는 18-27세 연령에 있는 모든 국민은 2년 동안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합니다.

문제는 이 발표 후에 영장발송 및 신체검사의 절차를 무시하고 군인들이 청년들을 마구 잡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일단 키가 크고 덩치가 좋으면 학생, 연령에 상관없이 잡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개척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입입니다. 특별히 사역자(33살)와 교회 청년들도 그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원래 성직자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잡혀가면 최일선으로 가야 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부 광고

- 03.10.2024

1. 선교지 소식과 기도제목
 ▷2024 말씀축제: 2024 말씀 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탈북민(통일민)22개 교회에서 180명의 캔디분들이 참석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복한의 복음화와 남한의 영적 회개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한국에서 70명의 팀 멤버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TÜRKIYE (터키) MEGL #14: 3/31-4/8 (TD & 현지교회 방문, 이스탄불 관광), S/L: 한기홍 목사, 렉터: STEVE AWH 안수집사, 문의: 김정철 집사 (714.944.3991)

▷그리스 난민 인콰운터 5기 및 사도바울 2차 전도여행 성지순례: 3/31-4/8, S/L: 설성훈 목사, 디렉터: 김태형 안수집사 (213.393.3215), 문의: 케빈김 안수집사(213.272.5984)

▷라오스 개척선교: 5/1-5/10, T/M모임: 매주 목요일(8회), 5층 선교부 사무실, 팀장: 홍호철 장로, 총무: 이정호 안수집사 (213.500.7939)

▷콜롬비아 목회자 TD 4기: 5/5(주)-5/10(금), S/L: 송종호 목사, ASST. S/L: 김도현 선교사, 렉터: 안승호 안수집사(G15), 문의: 안성민 집사 (703.593.5949)

▷브라질IMERSAO#2(한인포어 권TD): 팀멤버 모집, 5/29-6/1, 렉터:김수영 안수집사, 문의:로이 김 안수집사(213.999.1737)

▷파라과이 인콰운터 2기: 6/3-6/10, 문의: 노우중 집사 (213.761.3590), 항공권 관계로 사전등록

▷베네수엘라 AFA 10기 및 아미존 단기선교: 6/29-7/10, S/L: 김도현 선교사, 렉터:김희철 안수집사, 문의: 이충렬 안수집사 (562.665.0607)

▷몽고 목회자 TD (MONGOLIA TD) 1기: 7/26-8/3, S/L: 한기홍 목사, 렉터: 원용경 장로, 코디네이터: 라병원 장로, 문의:이한철 안수집사(858.335.9415), 항공권 관계로 사전등록

3.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GMIMMISSION

WWW.FACEBOOK.COM/GMIMMISSION/

4.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11:15AM. 문의: 의료선교국료선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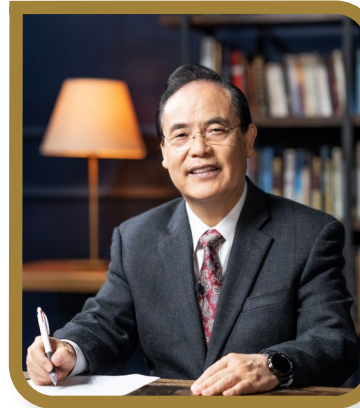
5.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2024년 3월 GMI-GKC 선교사 현황 : 61개국 330명 (자체 파송 79%)

GRACE 선교소식

2024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이번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CIS 구소련 목회자 모임은 위로와 격려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충만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GMI 현지 지도자들은 구소련 지역에 만개의 GMI 교회가 개척

되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번 대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한기홍 목사님 선교일정

- ▷ CIS 목회자세미나 (3/10-16)
- ▷ 터키 MEGL (3/31-4/5)
- ▷ 독일집회, 유럽성회(4/7-4/12)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요르단 1

- 최OO 최OO 선교사

아랍의 심장 J국에서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2024년 1월 말부터 현지인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지하교회를 2개 이상 개척하고 있는 현지인 12명을 선발하여 한 달간 합숙 훈련을 하였습니다.

참가한 이들 가운데에는 최근에 복음을 전하다 몽둥이로 두드려 맞고 또 칼에 베여 생명의 고비를 넘긴 M형제, 난민이자 여성 신분이지만 2016년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H자매, 회교도 지도자 이맘에서 2년전 복음으로 거듭나 사역을 준비중인 Y

형제 등 중동 이람에서 복음으로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군대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한 달의 합숙 기간 동안에 새벽통성기도 1시간을 비롯한 모든 훈련과정을 통해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앞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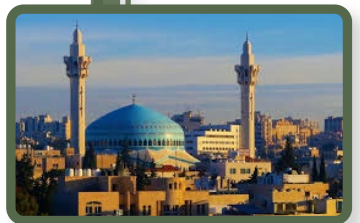
그리고 그 확신을 고백하고 목도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한 달 합숙 현지인 지하교회 개척 리더 훈련을 마치자마자 교육생 형제가 개종의 이유로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일단 12일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감당해야 할 일들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이 형제가 이 일들에 당당히 맞서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한 때 이맘이었다가 개종한 형제 역시 지역 무슬림들과 이맘들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해와서 현재 "안전가옥"을 만들어 그곳으로 이동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니타! 아랍 22개국이 복음화 되도록 이들 12명들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북한

- 김OO 선교사

년 30명이 참석하였고 남한 청년 26 명이 섬겼습니다. 총 76명이 참석하였고 남북이 연합하여 은혜 가운데 시작하고 마무리 하였습니다.

진정 놀라운 기적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면서 간증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련회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영적, 육적으로 치유의 역사도 체험하여 이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이들을 통하여 가족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2024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10기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는 5세부터 84세로 구성된 탈북민 어른 20명, 청소년

케냐

- 황광식 원지혜 선교사

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학교가 좋게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430명이 넘어 이제 더 이상 신입생을 받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기독교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확장하고자 계획중입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장과 신학교의 갈등 속에서 과감히 직장에 사직서를 내고 14시간 거리를 차를 타고 오늘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이 장차 주님의 강한 군사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케냐는 불가마 같은 더위 속에서에서도 아이들이 국가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오랜 기도제목이던 스쿨버스도 해결되었습니다

신학교는 올해 첫 세션이 시작되어 더운 와중에도 모두가 열심히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직

요르단 2

- 고OO 이OO 선교사

영혼을 사랑하시고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계속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더불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은 종교적 신분만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깨우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이 복음 앞에 신실하게 서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들의 영적 부흥과 특별히 이들을 통

해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시리아 난민학교를 통해 계속해서 아직 종교적으로 이슬람화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의 복음의 씨앗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26일 마침내 이곳에 지하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가득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슬림

다. 지난주는 22번째 교회 건축을 위해 자체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학교는 이제 2학기가 시작되어 학생들이 늦은 나이에 열심 공부하며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여 부족한 학교 수업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 사역을 통해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 학생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한 금년부터 유치원 사역을 전담하는 조정아 선교사를 통해 교사 및 아이들과 그들의 가정에 복음이 깊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개의 자치, 자전, 자립하는 교회를 세우고 세계선교를 위해 30개국을 품고 후원, 파송하는 비전을 가지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가 각 교회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통하

길

<1분단상 126-3월호>

- 김대규 장로

한다는 것으로 우리는 끝까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는 진리의 길이자 십자가의 길인 것이다. 이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며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는 길이다. 주님도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때로는 고난이 오고, 절망하며, 시험이 불같다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성령께서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는 그 영광의 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길하면 오솔길로부터 고속도로, 뱃길, 비행항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길이 있다. 우리는 이런 길들을 접하며 살고 있다. 그런데 어떤 길든 그 길을 벗어나면 헤매게 되고 위험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길도 이룬데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은 더욱 조심을 요한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다. 영안이 떠져야 볼 수 있는 길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생명의 길인 구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낙타와 바늘귀(쪽문)의 비유처럼 모든 걸 내려놓아야만 들어가는 결코 순탄한 길이 아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한다. 죄를 멀리하고 정결하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대로 순종하며, 경건의 모양만을 나타낼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경건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이렇게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삶을 회피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리 살아야 한다.

John Bunyan이 쓴 그의 신앙고백서와 같은 천로역정(Pilgrim Progress)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가 천국을 향해 나갈 때 수많은 유혹과 역경들을 오직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싸우며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어야 하는 길인 것이다.

혹자는 구원을 받으면 쉽게 그냥 천국에 갈 수 있는 듯이 말하지만 성경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고,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며, 성결과 거룩과 경건을, 중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한 것만 보아도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만

그렇지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인데도 순종하겠느냐고 물으셨다. 예라고 답했을 때 그러면 아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내(Darlene)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였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로렌 커닝햄 목사(87)부부는 YWAM의 세계적인 사역을 감당해 오던 중 목사님은 지난 10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소천하였다.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진정한 믿음과 순종은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허울 좋은 믿음과 순종으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 전적 믿음, 전적 순종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리며 사셨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하물며 우리는 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가야 할 길, 생명의 길은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드리며 죽어도 마다하지 않는 여정이다. 이는 성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 동거하는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금 우리는 진정으로 어느 길에서 있는 것일까? 저 천성을 바라보며 생명의 길에 우뚝 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하소서" 자신있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

YWAM(예수전도단)의 설립자 로렌 커닝햄(Loren Cunningham)목사의 이야기를 인용한다. 엄청난 물결이 전세계 대륙을 덮더니 그 물결이 수많은 청년들이 전도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순종코자 젊은이들을 세우는 초교파 선교단체인 YWAM을 설립게 되었다. 그 이유로 교단을 떠나야 하는 일로부터 좋은 청빙자리의 포기 등 그는 여러 현안을 정리해야 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코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미련없이 내려놓았다.

어느 날 선교회가 있는 California로 가다가 대형교통사고가 일어나 병원에 실려 갔다. 그가 깨어났을 때 옆자리에 있던 아내는 숨이 끊어져 있었다. 주께 순종코자 발을 내딛었는데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었다.